대한민국경찰불교회가 '전·의경 포교 활성화'를 올 하반기 중점 사업으로 정하는 등 청년포교에 앞장선다. 또 일터와 가정을 수행의 정법도량으로 삼는 '참 불자 되기 운동'도 전개한다.

대한민국경찰불교회(회장 김중겸, 이하 대한경불회)는 5월 2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본청 법당에서 제2기 중앙 임원단 첫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사업 계획안을 확정했다.

전·의경 포교 올 하반기 중점사업 선정
직장·가정 수행도량 삼는 '참불자 운동'
대외협력·홍보·기획·사이버부 등 신설

◇'경찰불교 파이팅!' 대한민국경찰불교회가 지난 24일 서울 서대문 경찰청 법당에서 제2기 중앙 임원단 첫 회의를 갖고, 힘찬 출발을 다짐하고 있다.

경찰불교회, 활동마당 넓힌다

특히 대한경불회가 이번에 전·의경 포교를 추진하게 된 배경은 그간 청년 포교의 텃밭인 의무경찰 포교에 소홀했다는 자체 판단에 따른 것으로, 단체 신행활동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전·의경 법회 활성화를 중앙 차원에서 풀어보겠다는 의도에서다. 이는 포교 프로그램 부재, 지도법사 부족 등 전국의 경찰불교회가 안고 있는 현실적인 여건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대한경불회는 이를 위해 현직 조계종 포교사단 경찰포교팀장을 포교부장으로 영입하는 등 구체적인 포교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또 경찰출신 상임포교사 25명을 전·의경 법회에 지도법사로 투입하고, 지역별 경찰포교후원회 결성도 유도해낼 방침이다.

대한경불회는 불교를 바로 알고 실천하자는 취지로 '참 불자 되기 운동'도 벌인다. 이 운동은 정기법회, 성지순례 등의 기본 신행생활에 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신행일치' 운동 차원에서 펼쳐진다. 또 지역에 따라 산발적으로 진행돼 온 봉사활동도 일정 기간에 집중, 대사회적 역량을 제고시킬 계획이다.

조직관리도 내실화 한다. 현재 대한경불회 산하 13개 지부, 57개 지회의 운영 현황을 파악해,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한다. 지원책은 불교회 활성화 성공사례 제공, 등산 및 사찰 참배 등의 소모임 활성화, 지역별 연계활동 및 사이버 포교 강화 등으로 추진된다. 이를 위해 대한경불회는 지난 4월 제2차 정기총회를 열고, 2기 중앙 임원단을 수도권 중심의 실무형 인사로 선출하는 한편, 대외협력·홍보·기획·사이버부 등을 신설했다. 이와함께 지부별 임원단 회의를 분기별로 실시하고, 전국 총무단 회의도 정례화 한다. 대한민국경찰불교회 김진홍 사무국장은 "이번 중앙 임원단 회의는 지난 2001년 창립 이후, 처음 모였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조직운영의 내실화, 교계 신행단체와의 연계활동 등을 통해 경찰불교 활성화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우리 모임에선

상주시청불자회 창립1돌 법회

경북 상주시청 공무원불자회(회장 최경수)는 5월 31일 상주시 남장사 설법전에서 창립 1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120여 회원이 참석한 이날 법회에서는 남장사 주지 수봉 스님의 법문, 불자회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등이 진행됐다.

국회직원신도회 특별법회 봉행

국회정각회직원불교신도회(회장 이길성)는 5월 29일 여의도 국회 정각회 법당에서 스리랑카 스마나트나 스님 초청, 특별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이길성 회장은 "스리랑카와 뉴질랜드에서 불법을 전파하고 있는 스님의 법문이 인생을 사는데 큰 가르침이 됐다"고 말했다.

서울시 중구청불자회 성지순례

서울시 중구청 불자회(회장 김용중)는 1일 경기 강화 보문사와 전등사, 선원사지 등으로 성지순례법회를 다녀왔다. 80여 회원이 참석한 이날 순례에서 김용중 회장은 "초심자 회원들은 물론 일반회원들에게 불교를 다양하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데 유익한 시간 이었다"며 "회원들이 불심을 닦는데 많은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마산시청불자회 산사체험

경남 마산시청 공무원불자회(회장 박일춘)는 7~8일 이틀간 양산 통도사로 '주말 산사체험'을 떠난다. 이번 주말 산사체험에서는 통도사 포교국장 오심 스님이 '불교란 무엇인가'란 주제로 법문을 하고, 불자회원들은 일주문에서 금강계단까지 3보1배 수행 체험을 한다. 박일춘 회장은 "주말 산사체험은 불자회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행사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

안양시청불자회 창립
초대회장 김상문 씨

경기도 안양시청 공무원불자회가 창립된다.

안양시청 공무원불자회(이하 불자회)는 최근 시청 소회의실에서 창립발기인 모임을 갖고, 이달 21일 시청 대강당에서 창립법회를 열기로 했다.

불자회는 올 3월 총무과 직원이 시청 게시판에 불자회 창립을 제안하면서부터 본격화 됐고, 이후 50여 명이 참가의사를 밝혀와 이번에 출범하게 됐다. 이를 위해 불자회는 4차례 창립준비 모임을 연이에 갖고, 수원 용주사 주지 정락스님을 초대지도법사로 위촉하고, 회장 및 부회장 등 임원진을 선출했다.

불자회 창립을 주도한 김상문 초대회장(청소사업소장·51)은 "인근 경기도청과 의왕시청에서는 불자회가 있었지만, 정작 우리 시청에만 불자회가 창립되지 않아 안타까웠다"며 "뒤늦게 창립된 만큼 부지런히 신행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철우 기자

모든 사업 재점검… 내실화 다질 것
철불협 3대의장에 추대된 조진규 씨

"이제는 내실화입니다. 그간 철불협이 벌어온 모든 사업들을 재점검하고, 전국의 산하 단체 역량을 한데 모아내겠습니다. 우리 단체가 명실공히 철도공무원 불자들의 대표 신행모임으로 확고히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근 철도청불교단체협의회 제3기 의장에 추대된 조진규(철도청 조달본부장·55·사진) 씨. 조 신임 의장은 앞으로의 철불협 활동방향을 이렇게 밝혔다.

"철불협은 그야말로 다양한 신행활동을 펼쳐왔습니다. 환경을 주제로 한 환경방생법회, 환경 살리기 걷기대회, 북한어린이와 노숙자 돕기, 봉축열차 운행 등 일터는 물론 사회적인 문제에까지 직접 참여해 불법을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지금부터는 조직력을 탄탄히 다질 차례입니다.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토대 마련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 의장은 또 직장 특성상 '안전'을 특별히 강조했다. 전체 회원 1천여 명 중, 7~80%가 기관사 불자인 점을 감안해 올 하반기에도 무사고기원 철도불자연합법회와 열차안 전운행캠페인 등에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김철우 기자

우리불자회는요

부산영도구청 법우회

우리 법우회는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에 근무하는 공무원 불자들의 모임입니다. 10여 명의 불자들이 뭉쳐 지난 2000년 9월에 창립했었습니다. 그야말로 갓난 아기였습니다. 사실 불교에 '불'자도 모르는 초짜배기 불자들이었지요. 불교교리나 제대로 알았나요? 부끄럽지만 무턱대고 불교를 믿었던 셈이지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골수(?) 활동 회원만 50여 명이 넘는 부산 지역을 대표하는 직장 신행단체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냐고요? 궁금하십니까. 지금부터 우리 법우회 자랑을 들어보십시오.

단연 우리 법우회원들의 신심이 이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가정과 일터를 가장 건강하고 신바람 나는 수행처로 만들려고 노력해왔기 때문입니다. 자체 법회를 매달 부산 영도구 미룡사에서 열었고, 이것도 모자라 구청 대회실을 빌려 교리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차츰차츰 알아가는 불교교리에 회원들 모두가 환희심을 내곤 했습니다. 부산시 통합법회도 빠짐없이 참석했습니다. 두 달에 한번 씩 부산 서구 보타원에서 봉행되는 시 통합법회는 공무원 불자들 간에 교류와 친목의 장이 마련됐습니다. 서로가 안고 있는 신행고민에서부터 가정사까지 터놓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소중한 법석이었습니다.

이뿐만 아니었습니다. 매년 하안거, 동안거 기간에는 성지 순례를 떠났습니다. 대구 팔공산 일대며, 전남 향일암, 경북 포항시 오어사 등 전국의 사찰을 찾아갔습니다. 마치 스님이 화두를 들고 수행정진을 하시는 것처럼, 우리 법우회는 그 기간 동안 재가 수행자로서 몸과 마음으로 불교를 만났습니다.

물론 순탄한 길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초창기에는 회원들의 참여율이 생각보다 낮아 모임 자체가 위태로웠습니다. 또 과다한 업무와 직장내 비공식 모임이라는 점은 법우회 활동을 더욱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려울 때일수록 회원들의 응집력은 커졌습니다. 신심이 깊은 회원들이 법우회 활성화를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류춘희현 회장(청소행정과장)과 두 분의 부회장을 중심으로 법우회 알리기에 나섰습니다. 신입회원 모집을 위해 부서마다 홍보문을 붙이고, 청내 전산망에 홍보글을 수시로 업데이트 했지요. 또 불교라고 알려진 직원들이 있으면, 한사람 한 사람 만나 법우회를 알려나갔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대단한 열성이었습니다.

가정·일터를 '신바람 수행처'로
도반 일깨우는 법명 불러주기 운동

◇올 1월 포항시 오어사 참배를 마친 부산시 영도구청 법우회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올 하반기부터 우리 법우회는 '법명 불러주기 운동'을 벌일 계획입니다. 서로가 도반임을 항상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큰 스님 법문도 많이 들을 생각입니다. 영도구청 인근 사찰을 찾아 감로법을 듣는 것은 물론, 우리 지역에 어떤 사찰들이 있는지 공부하는 자리를 마련할 겁니다. ■윤성진 총무

육임래정비법 수정보완본
값 2,500,000원
기존 혁식판과 교환해 보실분은
값 800,000원

육임래정비법「휴대용」각 순(旬)별 6권 증보발간 안내
「효사육임강의록」증보판 上 下권 무료 교환신청접수 안내

육임래정비법 일어판
값 272,000円
일본 판매 개시
(5월 15일부터)

본 「육임강의록」 하(下)권 국수편을 「시간별 래정」 과 함께

1. 갑자순(甲子旬) 10일치 1권
2. 갑술순(甲戌旬) 10일치 1권
3. 갑신순(甲申旬) 10일치 1권
4. 갑오순(甲午旬) 10일치 1권
5. 갑진순(甲辰旬) 10일치 1권
6. 갑인순(甲寅旬) 10일치 1권

씩 6권으로 나누어 얇게 제본하여 우리 활인천역자가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휴대용으로 만들었습니다.
국수해설과 정단별 류신구분 및 초사와 귀신침범여부 등을 포함한 본 강의록 하(下)권을 그대로 옮겼으며, 크기는 종전의 휴대용과 같은 가로 155m/m × 세로 105m/m이고 권당 두께 20m/m입니다.
종전의 휴대용이 한 권으로 되어 있고 내용면에서도 본서에 비해 훨씬 떨어지므로 이번 이 책은 가히 육임래정의 완성편을 휴대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값은 310,000원이고 단, 본 강의록 이나 수정보완본 또는 혁신판 등을 구입하신 분에 한해 보내 드리고 있사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강의록은 공익법인한국육임학회 회원 및 부설 전국 육임학당 교재로 사용되어 오던 것을 증보시킨 것입니다.
■ 기 「강의록」을 구입하신 분은 교환신청하여 새책을 보십시오. 무료로 교환해 드리고 있습니다.

육임강의록 (上) 권 증보내용(기존 내용 外)
- 사복법 一 · 二
- 부정빌미 원인(原因)
- 병인(病因) 병증(病症)
- 육임고시(考試) 문제집
- 육임백법(百法)
- 임상사례 모음

◆「사복법 一」의 항목(예)
① 저안에 물건이 들었는가 비었는가?
② 저안에 든 물체가 죽은것인가 산것인가?
③ 저안에 든 물체가 살았다면 무엇인가?
④ 저안에 든 물건의 품질은 어떤것인가?
⑤ 저안에 든 물건이 새것인가 헌것인가? 壯한가 老한가?
⑥ 저안에 든 물건이 어떤 모양으로 생긴것인가?
⑦ 저안에 든 물체의 안색은 어떤 색인가?

육임강의록 (下) 권 증보내용(기존 내용 外)
- 국수해설
- 길흉성부단정항목 1쪽으로 독립
- 육임판단순서
- 정단별 류신(類神)구분
- 초사(初辭)
- 귀신침범여부

◆「사복법 二」는 사람의 신분을 미리 알 수 있도록 정리되어 있습니다.
⑧ 저안에 든 물건은 먹을수 있는것인가, 못 먹는것인가?
⑨ 저안에 든 물건의 맛(五味)은 어떤 맛인가?
⑩ 저안에 든 물건(돈)은 몇개, 얼마인가?
⑪ 돈이 오른쪽에 들었는가 왼쪽에 들었는가?
⑫ 저안에 든 물건이 계절이 지난 것인가 현 계절의 것인가? 다가올 계절의 것인가?
⑬ 저안에 든 물건이 쓸 수 있는 것인가 쓸 수 없는 것인가?
⑭ 저안에 든 물체의 속 색깔과 겉 색깔은 어떤색인가?
⑮ 저안에 든 물건이 한가지 인가 섞여 있는가?

공익법인 한국육임학회 부설「육임학당 효사숙」강의 안내
효사숙 제 6기 강의를 시작 합니다.
오는 6월 6일 금요일 오후 5시부터이고, 오행기초, 기본강의는 3시부터 2시간 사전 교습받게 됩니다.
본 3개월 과정을 이수하면 본인 의사에 따라 본회 회원 자격으로 매주 수요일 5시부터 3시간동안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육임 고급실기강의 를 무료 수강할 수 있게 됩니다.
교재는 효사육임강의록 증보판 上 下권 (값410,000)을 드립니다.
등록비는 1백 5십만원이며 5월 30일까지 등록을 마치시기 바랍니다.
단, 활인천역자로서의 그릇 여부를 판단, 선별하여 등록을 받습니다.

▶ 주문 전화 02) 993-8680 ● 본 휴대용 값 310,000원 ● 본 강의록 상·하 값 410,000원 ● 육임래정비법CD 2,000,000원 ● 육임신수비결 300,000원 ● 육임강의 비디오 900,000원
▶ 현금입금 후 전화요망 / 2일이내 도착 배본 / 우리은행 813-041583-13-101 김영란 도서출판 卜問